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Bio-USA 2026 참관후기

중국과 AI로 격화된 경쟁

2026.07.03 |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하나증권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Contents

1. 개요	3
2. History & Overview	4
3. Session 주요 주제 1: 미국의 급변하는 정책/규제와 대응 방안	8
4. Session 주요 주제 2: 제약/바이오 산업을 위한 AI	13
5. Session 주요 주제 3: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	15
6. Session 주요 주제 4: 유전공학/세포치료제	19
7. Session 주요 주제 5: 그 외 논의된 적응증	22
8. 중국 외 국가 별 주요 주제	25
9. CDMO 산업 동향	26
10.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사	29
11. Team Korea: 한국관 기업 소개	35
12. Bio-USA 2026으로부터 얻은 시사점	36

본 보고서는 하나증권과 KOTRA 협업으로 해외전시회를 활용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투자 및 진출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Bio-USA 2026 참관 후기 요약

- Bio-USA는 세계 최대의 제약/바이오 비즈니스 컨퍼런스로, 미국 다음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참석함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적 견제 분위기로 중국 참여 기업 크게 감소 - Wuxi도 참석하지 않음
- 반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주제로 한 Session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3개가 진행되었고, 중국을 주제로 하지 않은 Session에서도 중국의 기술 발전 현황은 수차례 언급됨
 - (1) 중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글로벌 후기 임상 진입과 활발한 연구 및 학술 활동으로, 기술 신뢰도는 이미 확보하였음
 - (2) 중국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주도적으로 AI 인프라와 바이오 산업을 동시에 투자한 성과로, 이제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 하였기 때문에 더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완전한 onshoring는 불가능함을 인지해야 하고,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할 미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 (기초 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 비용과 효율을 무시한 정책 및 규제 등)
- AI는 개발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ROI 중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법이 논의됨 → 산업이 적극적으로 AI 개발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
 - (1) AI 기반 벤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 →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함
 - (2) AI로 인해 BIC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예측 가능성 및 임상 효율 증가로 플랫폼 검증 속도도 빨라짐 → 경쟁 심화
-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 CMO/CDMO 기업들의 제조 역량 증가, 희귀질환 시장 개화로 시장 확대될 것(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5%에 불과)
- 기업홍보 Session을 진행한 빅파마 중, Novo Nordisk가 파트너십에 가장 열의가 강해 보였음 (J&J, Genentech은 미국 기업)

Bio-USA 2026 개요: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 미국 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제약/바이오 비즈니스 컨퍼런스
- 업계 동향을 소개하는 세션, 파트너링 및 기술 전시가 목적으로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회와는 구별됨 (ASCO, ESMO 등은 학회)
- 올해는 1,661개의 기업이 전시 목적 및 스폰서로 참가하였고, 기업 소개를 포함하여 501개의 세션이 진행됨

Bio-USA 2026 로고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Bio-USA 2026이 열린 San Diego Convention Center 전경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2. History & Overview

행사장 구성: Exhibition/Session/Partnering Zone

- 컨벤션 홀은 크게 1층의 전시장과 파트너링 공간, 2층의 세션이 진행되는 회의실과 추가 파트너링 공간으로 이루어짐
- 전시장은 크게 BioProcess Zone(제조), Digital Health 및 AI Zone, Contract Services Zone, 각국별 구역으로 나눠 짐
- 대부분 세션은 1명의 중재자와 2~5명의 패널이 토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기업 소개 세션은 15분씩만 부여됨

Bio-USA 2026의 1층 전시장 지도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2. History & Overview

전시장 분위기: 미국의 견제 속에 중국 참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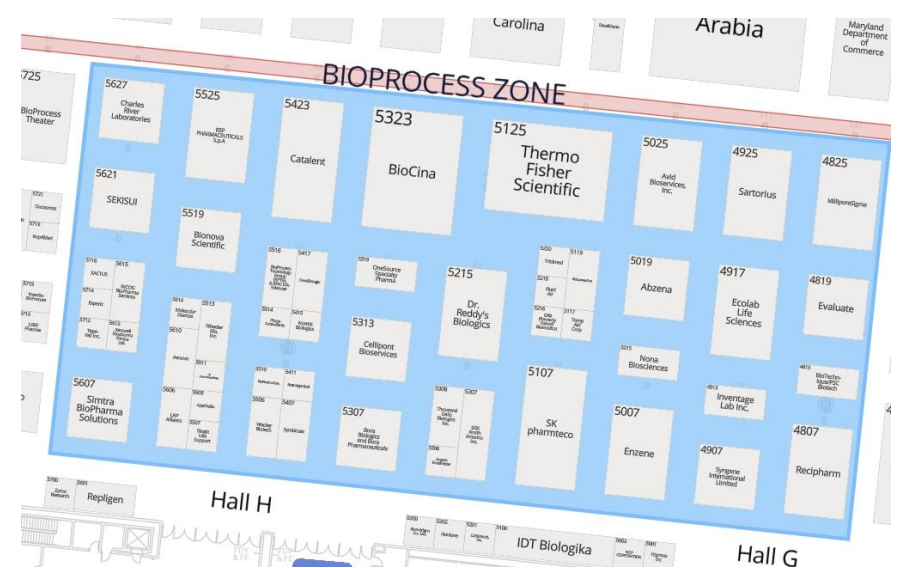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적 견제 분위기 하에 중국관이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작았고, 참여 기업도 크게 감소
- 글로벌 CDMO 기업이 대부분 Bioprocess zone과 Contract Service zone에서 전시와 활발한 파트너링을 하였으나 Wuxi는 불참함
- 반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주제로 한 Session은 3개가 진행되었고 (아시아 국가 중 최다), 회의실이 꽉 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임

전시장 내 China Pavilion (마크 된 곳)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전시장 내 Bioprocess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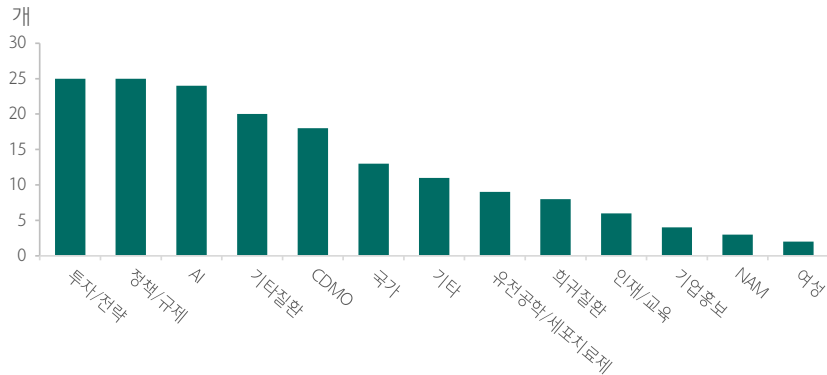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2. History & Overview

Session 주요 주제: 급변하는 미국의 정책, AI, 그리고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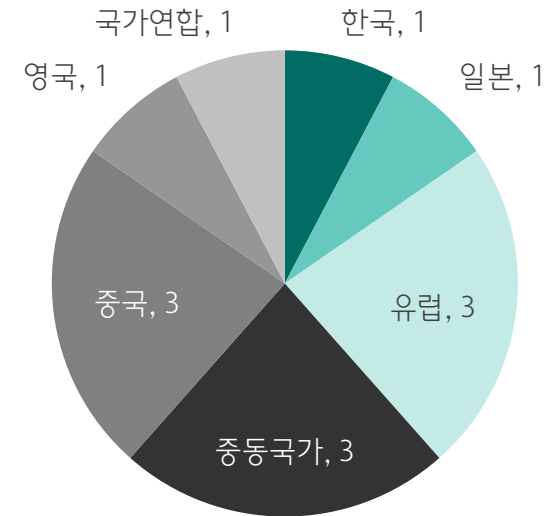
- 24년 말 부터 미국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급변하며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혼란스러움을 겪는 상황 → 전략적 대응과 기회 찾기
- AI를 이용한 기술 개발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님 → 데이터 수집 전쟁에 진입, 혁신 플랫폼의 성숙기 진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 중국은 지난 5년 간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고,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배울 점은 무엇인가

Session에서 주제별 비중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국가별 Session 비중 (국가명, 개수)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미국 내 제약 공급망 회복을 위한 노력

- 미국은 COVID-19 기간 동안 제약 공급망이 매우 취약함을 확인하며 주요 공급망을 내수화(onshoring)하고자 노력 중임
- 최근 미국 정책과 가장 크게 부딪치는 부분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중국 규제와 IRA 법안
- 국가 안보 요구와 상업 시장 현실 사이에 큰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
 - (1) 필수약품과 제약/바이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가운 등)는 저마진 제품들이라서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제조하도록 유도하기 매우 어려움
 - (2) 현재 177개 필수 의약품을 도출했고, 제조 방법 연구가 가장 잘된 편인 의약품임에도 API 내수화에 5년 정도는 걸리는 일이라 예상하고 있음
- NSCEB도 미국은 혼자서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름
 - (1) NSCEB는 미국 신흥 바이오테크놀로지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의 약자로,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超黨的) 독립 자문 기구
 - (2) 2025년 4월 8일 생명공학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중국의 속도를 늦추도록 보장하는 최우선 권고안을 마련
 - (3) 글로벌 공급망이 이미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어 완전한 내수화는 불가능 → 대안을 찾아야 하고,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함 (후술)
- 글로벌 제약사가 라이선스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생산력 회복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 (1) 미국 내에서 개발 및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수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2) 다만 중국산 라이선스에 대해 완전한 내수화를 기대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 (적절한 치료 시기 지연 우려)

NSCEB가 발간한 국가전략기술로서의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전략 보고서

- 미국이 생명공학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해 실행해야 할 6대 전략과 49개 권고안을 제시하는 전략 보고서
- ‘23년 4월 ~ ’25년 2월까지 약 2년간 1,800건 이상의 관계자 회의, 기밀·비기밀 자료에 대한 다각적 검토, 미국 전역의 현장 방문, 외국 정부 및 기술 리더들과의 심층 논의를 수행한 후 보고서 작성

NSCEB의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전략 보고서 요약

전략	구체적인 시행 방안 중 특이사항 (요약)
국가 차원에서 생명공학을 우선시할 것	대통령이 임명하는 소장을 통해 생명공학 경쟁 및 규제에 관한 부처 간 조치를 조정
민간 부문을 동원	1) 비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독립 투자 기금을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 2) 미국 에너지부(DOE), 미국 상무부, 국토안보부(DHS)가 제조 시설 구축을 지원 3) 미국 국가 안보 기관 및 미국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는 기업이 특정 중국 생명공학 공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국방 분야에서 생명공학의 이점을 극대화	1) 미국 국방부(DOD)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국방부의 필요에 필수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업 시설을 전국에 건설 2) 미국의 자원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생명공학 기술의 중국 개발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 규정을 마련
경쟁사보다 혁신적인 우위를 점하라	1)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단일 진입점인 생물학적 데이터 웹(WOBD)을 에너지부가 구축하도록 승인 2)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민감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3) 주요 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국립 연구소 네트워크 내에 생명공학 센터를 설립, 행정부의 책임감 있는 기여
미래의 생명공학 인력을 양성	1) 인사관리처(OPM)에 정부 부처 간 생명공학 분야 인력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시 2) 연방 기관이 국가 안보 및 신형 생명공학 문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보장 3) 국내 바이오 제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
동맹국 및 파트너의 집단적인 역량을 동원	국제 생명공학 정책, 연구 개발(R&D) 및 공급망 확보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의 국제 기술 안보 및 혁신 기금의 범위에 생명공학을 포함

자료: NSCEB, 하나증권

미국 내 제약 공급망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

- 원료, 중간체, 가공, 최종 생산물의 유통 등 모든 API에 들어가는 KSMS로부터 올바른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확하게 매핑해야 함
 - (1) Known Shipper Management System; “화주 관리 시스템”으로 공급망 위기에서 물류 시스템 장벽이 문제시 될 수 있음
 - (2) KSMS가 완벽해야 규제를 해야 할 부분과 미국 내 인프라 투자 및 기업 지원을 감행해야 하는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음
- 더 경쟁력 있는 제조 방법을 갖추어서 글로벌 격차를 만들 것 → 궁극적인 내수화 달성을 위해 결국은 해내야 할 과제
- 제조업체가 CAPA를 갖추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 → 저마진 제품과 PPE 생산을 할 회사는 대부분 자본력이 약한 회사
- 공급망 구축에 참여할 의약품 제조/유통 기업의 교육도 중요
 - (1) FDA가 실제로 승인하지 않은 일이 시작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 사전 교육은 프로젝트 초기에 FDA와 협업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 국제 협력 전략에 참여하기 적합한 API 공급 국가로는 인도, 멕시코가 제안됨
 - (1) 미국 내 DP 생산역량은 탁월하고 이미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회사는 많은데, 문제는 원료와 API
 - (2) 원료는 석유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러한 회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함
- 인재 확보 전략 구축
 - (1) 중국은 포스닥 인재의 가족들이 그 인재를 채용한 기업(employer)이 소재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음)
 - (2) 포스닥과 같은 바이오 산업의 고급 인력을 미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비자 정책, 정착 비용 지원 등)

NIH의 예산 삭감의 우려 (Genetech 후원 세션)

-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NIH의 예산을 전년 대비 40% 삭감 → 민간 자금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
 - (1) 안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사고 방식이 문제
 - (2) 민간 자금도 중개 연구에 관심이 많고 기초 연구에 관심이 낮기 때문에, 혁신 신약 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는 더욱 약화될 것
- 현재의 예산 삭감이 미래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게 할 것
 - 더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절감 → 의료비 감소, 노동인력 상실 예방,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적 투자 생태계 조성
- 혁신에 대한 지원을 막음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것
 - (1) 중국은 바이오 연구에 1조 달러를 쏟고 있고, 5년의 장기 비전을 갖고 있음
 - (2) 중국이 생명 과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할 미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
- 연구력 강화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
 - (1) 중국의 임상 속도는 미국보다 빠르고, 환자 수는 더 많고, 비용은 더 저렴함 → 미국이 경쟁할 수 없는 요소
 - (2) NIH 예산 삭감이 대학 연구와 박사후 과정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과학 세대 간 손실을 발생시킬 것

팬데믹 이후 5년: 의료 대응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

- 미국의 자체 공급망 확보 외에 다방면에서 의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음
- 지난 독감 시즌에서 소아 사망자 수가 28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예방 및 대응력에서 여전히 취약함이 드러남
- 백신/감염 세션을 후원하는 기업은 Merck & co. (MSD)가 유일 (백신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이슈)

의료 대응 관련 이슈

주제	세부 내용
생물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조기 의학적 대응책 연구 개발에 중요한 데이터 수집, 우선 순위 위협을 식별하는 근거 제공, 플랫폼 투자 방향을 제시, 발병 확산 이전에 의사 결정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의료 대응 전략 강화	1) OTA(Open Trading Agreement) 필요, FAR(연방조달규정) 기반 계약이 원활이 가능하도록 조치, 파트너십 계약 등 다양한 조달 도구를 활용하여 의료 대응책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비 태세를 확보해야 함 2) Open Trading Agreement (개방형 무역 협정 / 자유 거래 협정): 위기 시 빠른 조달을 위해 무역 장벽(관세, 까다로운 인증 절차 등)을 낮추어 거래량을 늘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3)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연방조달규정):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조달)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규정 -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정부 사업 진입을 포기하게 됨
미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 확대 필요성	1)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2) 바이오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 인허가, 공급망, 정책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의료 대응력 약화 우려	1) 재정 압박 심화, 정치적 우선순위 변화, 연방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에 직면함 2)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산 삭감안,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보건 기관 개편 등은 감염병 감시, 발병 대응, 및 보건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약화시킬 위협이 됨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투자 수익률(ROI)을 높이기 위해 AI 활용 사례는 확장해야 함
- 생성형 AI 모델 → 유전체 데이터 기반 예측치 상승, 임상시험 설계 최적화로 자본 투입 규모 감소
- 양자 컴퓨팅의 발달로 표적 식별 및 화합물 최적화 가속화할 것
- 에이전트형 AI → 임상에서의 운영 비효율성 개선 (환자 모집 지연, 행정적 병목 현상으로 인한 연구 일정 연장, 환자 안전 보장 실패 등)
-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1) 임상 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검증, 데이터 무결성 및 규제 채택에 대한 새로운 표준 설정
 - (2) 생물/의학적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 방안 및 조치
 - (3) 알고리즘 이상으로 혁신적인 조직 구축이 중요 (AI에 적응력 있는 문화 조성, 조직 내 바이오-AI 인력을 융합)
 - (4) 바이오텍과 AI 개발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활성화
 - AI가 "end-to-end"로 통합해야 표적 식별, 신약 설계 가속화, 임상 시험 및 제조 최적화 등 전체 연구 개발 과정을 혁신할 수 있음
 -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생물학, 화학, 임상적 통찰력, 고성능 컴퓨팅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의 결합이 필수적
- (5) AI 기반 벤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함
 - 데이터 소유권 및 AI 플랫폼의 수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 데이터 품질, 개인정보 보호, 규제, 라이선싱 및 지적재산권적 측면에서 실용적인 전략을 파트너십이 함께 고민해야 함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적용되는 사례 공유

- AI는 단일 카테고리 가장 많은 주제로 Session이 진행되었고, 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와 향후 개선점 등을 공유함
- Lilly의 참여가 가장 많았던 주제이기도 함
- AI로 신약 개발에 접근하는 것인 이제 당연한 수순이고, 생성형/에이전트형/양자컴퓨팅 등 어떤 AI를 어느 단계에 활용할 것인지, 임상이나 규제에 AI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더욱 고차원적인 영역에서의 AI 활용 방안이 논의됨

AI-Biopharma의 협력에서 각 기업이 위치한 영역

Frontier 기반 모델 (Frontier LLMs) - 여러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첨단 범용 에이전트 기능

Bio-native, 범용 에이전트 - 광범위한 제약/바이오 유틸리티 및 도메인 특정 도구의 통합을 위해 설계됨 - Frontier LLMs 위에서 작동

전문가 모델 및 에이전트 - 특정 R&D 작업을 위해 목적에 맞게 구축됨 - 범용 에이전트 위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

생물학적
발견 및 검증
(Target ID/ omics)

분자 설계
(Structure /
de novo)

Lead
Optimization
(ADMET /
SAR / PK-PD)

비임상 안전성 및
용량 범위 탐색
(in vitro / in vivo)

IND-Enabling
연구
(GLP tox / CMC)

임상 전환
(Ph1-2 /
바이오마커)

중국 바이오 기술의 발전 근거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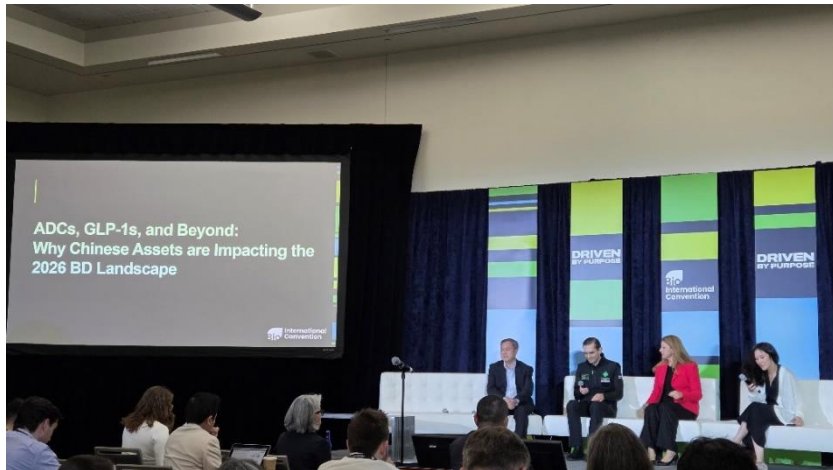
- 중국 바이오 기술 산업은 2023년 이후 빠르게 발전
 - 초기에 종양학 분야에서 혁신이 관찰 → 2025년 이후에는 면역학, 신경학, 안과학, 비만 등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증가
- 인공지능(AI)을 신약 개발에 접목하는데 적극적 → AI 인프라 개발이 큰 몫
 - 바이오 산업계가 개발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AI 관련 인적/유형자산적 인프라에 함께 투자하여 발전 속도를 더 높임
- 제약/바이오 전체 생태계에서의 성장
 - (1) 기술이전은 물론이고 임상시험 건수, 제약 파이프라인이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2) 동시에 주요 학술지 게재 등 연구 성과도 증가하며 기술에 대한 신뢰도도 성장하는 추세
 - (3) 원료 등 저비용 자체 생산,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세계적 수준의 치료법 상용화에도 주력하며 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

5. Session 주요 주제 3: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

주요 세션 “ADC, GLP-1 그리고 그 이상: 중국이 26년 신약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바이오 기술 산업은 2023년 이후 빠르게 발전 → 초기에 종양학으로 시작하여, 대사질환, 면역질환, 뇌질환 등 영역 확대 중
- 더 발전할 자체 생태계가 구축되는 중: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승인이 미국만큼 빠름 → 반면 임상 속도는 더 빠름 → 인간 데이터 수집 속도와 상업화 속도 증가 → 개발 데이터 축적, 자본의 선순환으로 바이오텍의 생존력은 더욱 강화

Session 진행 분위기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Session 참석자

Moderator



Judith Li, MBA, Partner - Lilly Asia Ventures (LAV)

Speakers



Stefanie Schubert, PhD, CSAP, Professor - SRH University Heidelberg



Valerie Yu, MS, Healthcare Investor, Associate Director - Tencent Investment



Alex Zhavoronkov, PhD, CEO & Founder - Insilico Medicine



Weichang Zhou, PhD, CTO - MediLink Therapeutics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패널로 참여한 Insilico Medicine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의견

- Insilico는 2014년에 설립한 AI 기반 신약개발 기업으로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 2025년 12월에 홍콩(HKEX) 시장에 상장함
- Insilico가 언급한 중국이 AI 기반 신약 개발에 있어 다른 국가 대비 유리한 이유
 - (1) 초기 단계의 자산에도 최고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다수 존재 (기업의 자본력)
 - (2) 수많은 Deal 경험으로 BD 능력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Sub-Licensing을 고려한 공동 개발 파트너로도 좋음
 - (3) 우수한 인재와 높은 노동 강도 (“주말 없이 7일, 새벽2시까지 일한다”고 언급)로 빠른 피드백으로 Insilico가 거래 시작부터 완료까지 한 달 걸린 사례를 공유
 - (4) 중국의 대규모 인구, 빠른 임상 승인으로 AI 후보물질, 새로운 플랫폼의 적합성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음

중국 관련 Session 요약

주제	주요 내용	참석 패널
ADC, GLP-1 그리고 그 이상: 중국이 26년 신약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이후 중국 바이오 기술 산업은 치료 혁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룸 • 벤처 캐피털 투자자, CEO, 전략 전문가들이 중국 시장 발전 근거에 대해 논의 	* Judith Li - Lilly Asia Ventures (LAV), 파트너/ * Stefanie Schubert - CSAP, 하이델베르크 SRH 대학교 교수/ * Valerie Yu - Tencent Investment, 헬스케어 투자 전문가/ * Alex Zhavoronkov - Insilico Medicine, CEO 겸 창립자/ * Weichang Zhou - MediLink Therapeutics, CTO
중국과 미국 바이오 기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관계는 상호 의존성과 긴장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음 • 바이오 기술 생태계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 	* June Lee - Abivax, 이사/ * Lila Hope - Sidley Austin LLP, 파트너 * Nisa Leung - Aulis Capital, 매니징 파트너/ * Ken Song - Candid Therapeutics, 사장 겸 CEO/ * Samuel Zhang - Innovent Biologics, CEO
치료법 경쟁: 미·중 생물학 경쟁력 평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e Innovation Index와 미국 학계 및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혁신 현황을 공유 	* Seema Kumar - Cure, CEO/ * Vanessa Almendro Navarro - City of Hope, 최고상업화책임자/ * Yan Ling - Takeda, 중국 연구 혁신 총괄 이사/ * John Schiel - ARPA-H, GIVE 프로그램 관리자/ * Jue Wang - Insilico Medicine, 글로벌 사업 개발 총괄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Session에서의 주목할 질의와 답변

- Q. 중국이 First in Class에 투자를 하는 경향은 적은 것 같다.

A1. 지난 5년은 FIC를 하기에 너무 많은 과학적인 위험과 인프라의 부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BIC에 집중함.

현재 중국은 FIC에 도전하고 그 기회비용을 감당할 자본력은 충분한 상태.

A2. BIC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FIC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모델을 구축 → 중국 식약처가 신약에 대한 임상을 관리하고 승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됨 → 초기 연구 및 칼럼으로 기술력을 입증 → 데이터 수집 → FIC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축

- Q. 중국이 현재 집중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A1. 데이터 수집 (중국 기업은 중국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음). Tencent Investment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바일 엔지니어링에도 투자를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함

A2.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AI 인프라 투자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함

*참고: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도로 5년간 2조 위안(약 2,950억 달러)을 투입해 전국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잇는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망 구축을 추진 (2026년 6월)

- Q. 앞으로 5년-10년 사이 중국은 어떤 모습일 것 같나?

A1. ADC와 GLP-1과 같은 유행이 오면 가장 먼저 이익을 취할 국가가 될 것. 이익을 가장 먼저 취하게 되는 사람들은, 가장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임 (중국의 AI 인프라와 신약 개발 환경이 속도전에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의미)

A2. 투자자도 그 혁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자할지에 대해 바이오텍 기업과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음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분야의 전망이 밝은 근거 (1)

- CMO/CDMO 기업들의 제조 modality 다양화와 함께 세포 및 유전자 치료의 제조 관련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1) 자동화, AI, 디지털 트윈, 고급 분석 기술로 일관성, 속도, 확장성 향상
 - (2) 융합 과학 발전이 생물공정 엔지니어링, CDMO(위탁개발생산기관), 세포 및 유전자 치료(CGT) 플랫폼 개발 전반에 영향을 미침
 - (3) 원가 절감, 재현성 향상에 기여하며 상업적 규모의 글로벌 공급도 가능하게 할 것
- CGT의 상업화와 임상 진입 사례가 발전함에 따라 희귀 질환 시장이 개화 → 희귀질환 중 치료법이 있는 질환은 5% 미만

유전공학/세포치료제 관련 Session 요약

주제	주요 내용	참고 기업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기술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혁신 • 생물공정 엔지니어링, CDMO(위탁개발생산기관), 세포 및 유전자 치료(CGT) 혁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동향 소개 	-
in vivo 줄기세포 엔지니어링의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 내 조혈 줄기세포(HSC)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표적화 방법 • 다양한 질병 영역에 걸친 치료 기회, 전달 및 안전성 문제, 그리고 성공에 필요한 규제 및 상업화 모델에 대한 논의 	-
이종이식의 임상 도입: 장기 부족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대상 이종이식 연구 데이터, 유전체 공학의 발전에 대한 논의 • 초기 성공을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임상 진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mRNA 활용: 공중 보건 및 글로벌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NA 의약품은 뛰어난 신속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환자 치료를 넘어 팬데믹 대비, 생물방어 등 국가 및 세계 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음 • mRNA 공급망 및 국내 생산 역량 강화, 국제 협력, 글로벌 경쟁 대응 방안을 논의 	-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분야의 전망이 밝은 근거 (2)

유전공학/세포치료제 관련 Session 요약 (이어서)

주제	주요 내용	참고 기업
희귀 질환을 위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법 개발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CGT의 희귀 질환 관련 최신 임상 데이터, 상업화로의 발전 현황을 조명 2025~2026년 임상에 근거해 소규모 환자 집단으로도 강력한 임상 근거를 생성하는 전략과 접근성을 논의 	-
세포/유전자치료를 받은 선구적인 환자들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포 및 유전자 기반 치료를 최초로 경험한 선구적인 환자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통해, 과학적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환자들의 기여를 들어보는 세션 환자들의 실제 경험으로 생명공학 산업의 혁신의 중요성을 재조명 	-
유전성 망막 질환을 위한 차세대 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성 망막 질환(IRD)은 유전자 치료의 발전으로 시력을 보존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며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 새로운 치료 접근법, 효과의 지속성 및 재투여 문제, 대규모 생산 과제를 논의 	-
CAR-T 치료법의 지역사회에 보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R-T 치료의 지리적-시스템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 거점을 주요 대학병원에서 지역사회 중양학 환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암을 넘어 자가면역 질환, 만성 질환에서 세포 치료법이 보여주는 가능성 소개 	BMS (패널)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술의 발전과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포 및 유전자 치료에서 AAV 벡터 안전성 문제로 신규 벡터와 전달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제조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약가 정책과 지불자 인센티브의 조정이 요구됨 	-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유전공학/세포치료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기술 분야

주제	내용 요약
생체 내 조혈 줄기세포(HSC) 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인 전달이나 in vitro 방식이 아닌 in vivo 개념의 접근 맞춤형이 아닌 기성품으로써 개발되며 치료 패러다임 발전 (기성품이 맞춤형 대비 상업화 가능성과 시장성 확대에 유리) 인체 내 골수에 존재하는 HSC를 표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유사 입자, 염기 및 후성유전학적 편집, 지질 나노입자, 렌티바이러스, 융합체 기반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생체 내 플랫폼이 기술 발전을 주도함
이종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0월 미국에서 유전자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이식 받은 환자가 8개월 이상 생존한 사례 FDA의 승인을 받아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영역 유전체 공학의 발전이 면역 거부 반응 및 바이러스 위험을 해결하고 있어 더욱 빠른 기술 발전이 기대됨
메신저 RNA(mRNA)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성, 신속성, 확장성을 갖고 있어, 자연재해, 사고, 적대적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적합한 성격을 가짐 각국 정부는 미래 팬데믹 대응에서 mRNA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 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함 공중 보건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분야이므로 국제 협력의 중요성, 전략적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성을 인지해야 함
CAR-T 치료법의 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시스템적 장벽, 인식 부족으로 적격 환자의 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사회 기반 CAR-T 치료 제공의 운영, 물류, 보험 적용과 관련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종양학을 넘어 자가면역 질환 및 기타 유병률이 높은 질환 분야에서도 놀라운 초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CAR-T 치료법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
향후 전망과 해결해야 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AV 벡터 기술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벡터와 전달 방식에 더욱 집중할 것 제조 공정 혁신으로 개발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제조사 측면에서도 일회성 치료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CNS/대사질환/면역질환, 그리고 희귀질환 (1)

- [CNS] 임상 진입을 위해 전임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신경염증 측면에서 알츠하이머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 접근법이 논의됨
 - (1) “전임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소
 - i) 임상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질병 모델 설정; ii) 인과적 치료 표적 발굴 및 검증; iii) 환자 분류를 위한 바이오 마커 활용;
 - iv) 의미 있는 임상시험 평가변수 설정; v) 혈뇌장벽을 통과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물 전달 방법 개발
 - (2) 일반면역과 달리 독성면역은 조기에 접근해야 하므로, 알츠하이머를 만성염증과 유전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 (3) 알츠하이머를 만성염증으로 접근한다면, 아밀로이드 추적 외에 염증과 약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바이오 마커를 요구
- [대사질환] 주요 세션 1개, 중국 시장 관련 논의 1개로 (총 2개), 시장 규모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함
 - (1) GLP-1 관련 논의: GLP-1을 넘어서는 새로운 메커니즘과 치료법이 요구
 -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놀라운 효능을 입증했지만, 상업화 단계 (혁신성 감소)로 정의됨
 - 대사 장애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용 기전, 지속성, 환자 적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병용 전략을 고려해야 함
 - (2) 대사질환에 있어 GLP-1과 병용 또는 이를 넘어서는 상호 보완적인 치료법으로 제시된 예
 - 신경염증 억제제, 운동 모방제, 대사 조절제 등의 소분자 약물은 경구 투여의 편리함과 함께 다양한 작용 기전을 제공
 - 유전자 치료제는 투여 횟수가 적거나 1회 투여로 지속적인 상위 경로 조절을 가능하게 함
 - 단백질 치료제(항체/펩타이드 포함)는 성장 인자 경로를 표적으로 하여 체성분을 최적화하고 근육량을 보존

CNS/대사질환/면역질환, 그리고 희귀질환 (2)

- [유전성 망막 질환(IRD)] 패널 중 Opus Genetics 외 모두 연구기관이어서 빅파마의 관심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치료 효과의 지속성 및 재투여 문제, 대규모 생산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됨
- [심혈관 질환] 주요 세션은 아니었으나(2개 세션), 1개 세션에서 “MSD가 후원”한 것이 특징적
 - (1) 재정적/개인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검진 방법 개선, 위험 요인 관리 및 예방 정책이 제안됨
 - (2) 심혈관 질환은 이제 증상 관리를 넘어, 유전자 치료제 발달로 치료 및 복구하는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는 점을 짚음
- [면역 질환] 2025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은 분야 (1개 세션)
 - (1) 2025년 노벨 생리 의학상은 '말초 면역 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과 이를 조절하는 '조절 T세포(Treg, Regulatory T cells)'의 기능을 규명한 세 명의 과학자에게 부여됨
 - (2) 면역 체계 억제 방식이 아닌 면역 균형 유지 기전으로 자가면역 질환에 접근하는 방식에 관심도가 증폭하는 계기가 됨
 - (3) 루푸스에서 약물 없이 관해를 유도하는 세포 치료법, 병원성 기억을 재프로그래밍하는 항원 특이적 접근법 등 면역 관용 과학, 특히 조절 T 세포(Treg) 강화를 통한 면역 관용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활성화 하고 상업화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 의미 있는 임상 시험(평가 지표 및 방법론) 설계 → 환자/보호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FDA와 직접 소통 방법이 요구됨
-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평가 지표 활용을 발전시킬 것
 - (1) 혁신적인 평가 지표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스폰서의 제출 자료를 최적화
 - (2) 질병 발현 및 환자 관련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FDA가 주도하는 협력을 강화
- 전략적인 임상 설계
 - (1) 높은 변이, 비가역적인 질병 진행, 제한된 환자 풀로 인해 무작위 대조 시험은 부적절 or 실행 불가능한 경우 다수
 - (2) 초기에 기능적 바이오마커 활용, 환자 간의 이질성을 제거하는 대신 수용하는 통계 모델 고려, 연구 목표를 질병 진행 양상에 맞출 것, 의미 있는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구조 구축, 환자 수가 적더라도 검정력을 확보하는 설계 등 고려
- 소아 희귀질환 우선심사 바우처(PRV) 프로그램 지원
 - (1) PRV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지급, 양도가 가능하고, 후속 제품 승인 신청 시 FDA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2) 그러나 '24년 부터 최근 입법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의회가 권한 갱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만료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
- 적응형 임상시험 전략(Adaptive Design)이 강력한 임상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규제 기관에서 적극 수용되어야 함
 - 수집된 interim data를 바탕으로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설계 방식으로, 단일군 설계, 대체 데이터 소스가 소규모 환자 집단인 희귀질환에 적합하고, 이에 기반하여 25-26년 사이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소개됨

8. 중국 외 국가 별 주요 주제

국가별 주요 주제

국가 명	Session 개수	Session 제목/주제	주요 강조한 내용
한국	1개	떠오르는 한국: 아시아의 차세대 혁신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 유치를 선도 • Best-in-Class나 유사 기전 신약 대비 혁신 신약이나 신규 모델리티에 집중하는 경향 • 신약 개발 위험을 신속하게 줄일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CDMO(위탁개발생산기관)와 임상시험 센터를 제공
일본	1개	일본 시장 및 임상시험 환경 개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인 신약 평가 시스템을 강조 • 의약품감독관리국(AMED), 의약품의약품국(PMDA) 등 정부 기관의 지원이 확대 • 의약품 규제 및 가격 책정 개혁, 임상시험 인프라 개선, 인재 교류 및 비즈니스 매칭 기회 증대
유럽 (영국포함)	5개	중동과의 협업 임상 시험 규제 간소화/효율화 영국 정책 동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법(Biotech Act)과 같은 새로운 입법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유연하고 포용적인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최근 도입된 EU 차원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임상의 투명성과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유럽 위원회의 핵심 생명과학 전략에 따라 임상 연구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
중동국가	4개	유럽과의 협업 사우디아라비아 최신 동향 아부다비 최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과 유전체 데이터 수집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밀 의학과 조기 진단을 발전시켜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할 것임을 강조 • 2026년 6월 “인공지능-데이터 청(AI and Data Authority) 설립” → UAE 정부의 AI-데이터 부서 통합 및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반의 데이터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발표 • 2023년 3월 에미레이트 유전체 프로그램 (Emirati Genome Program) 데이터 이니셔티브 캠페인 시행 → 아부다비 보건청 등이 주도하는 유전체(Genomics) 데이터 구축 사업
아시아	1개	NewCo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아시아 간의 거래 및 신설 회사(NewCo) 설립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라이선스 도입은 핵심 성장 동력이고, 기업들이 자본 효율적인 혁신 및 파이프라인 확장 경로를 추구한 결과 • 중국 NewCo는 초기 단계는 중국에서 진행하고 미국/유럽으로 확장하는 구조 (중국: CMC 및 독성학) • NewCo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IP, FTO, CMC 엄격성을 포함한 글로벌 개발 전략을 갖추어야 함 • 중국에서는 BIC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Peer test를 마치고 임상 단계를 높이고 있어 과학적인 근거는 명확함. 더 많은 중국 뉴코가 생겨나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 • 다만 바이오시큐어법과 중국 규정 같은 법률이 리스크. 법무팀과 성실히 협력해야 함. 이러한 불확실성이 생명공학 벤처에 위험을 가중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적됨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9. CDMO 산업 동향

Modality 확장과 글로벌 생산 Capacity/site 확보가 중요

- Specialized Modalities (Biologics, Cell & Gene, mRNA, ADCs) 관련 CMO/CDMO 기업만 144개 참여
- 국내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팜테코, 에스티팜/비티젠(구, 에스티젠바이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롯데 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등이 전시 참여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 공장 및 최근 인수한 록빌 공장의 Large Scale의 생산 Capacity를 강조; Lonza는 다양한 size와 modality를 갖는 단백질 의약품의 생산 역량을 강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시 부스 일부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Lonza 전시 부스 일부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9. CDMO 산업 동향

부스의 홍보 분위기로 기업별 강점이 구분됨

- Fujifilm은 다양한 modality 생산 능력 보다는,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등 각국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현황을 강조
- Catalent는 항체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에 더하여, 다양한 세포/유전자치료제 modality에 대한 개발 역량을 강조

Fujifilm 전시 부스 전경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Catalent 전시 부스 전경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Session에서는 글로벌 공급망과 수용력(Capacity)에 대해 집중적 논의

- 상업적 준비 단계(BLA 신청 준비)에서 상업적 입지, 인프라 복원력, 각국 별 규제/검사 프로세스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함 → 출시 시점, 장기 공급 가능성, 연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인 규모 확대 전략, 미국 기반 제조 필요 → 품질보증(PPQ) 및 상업적 출시까지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함
- 3상 시험 후 상용화에 성공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 과정 소개 → 이번 Bio-USA에서 유전자/세포치료제가 주요 주제이기도 함
- CMC가 바이오 기술의 경쟁 우위가 되기 때문에, CDMO 기업이 능력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 (1) 투자자/파트너들이 제조 위험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침 → 일반적인 CMC 오류도 경쟁 심화 분위기 하에 가치 변곡점을 지연시킴
 - (2) 개발 프로그램 설계, 분자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제조 가능성을 고려해야 상업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음
 - (3) CMC 전반에 AI를 적용하여 QMS, 일탈 및 CAPA 관리, CDMO 감독이 가능,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규정 준수, 데이터 무결성 및 규제 기관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전략이 구현될 수 있을 것

10.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사

Novo Nordisk의 관심 분야 및 파트너십 철학 (1)

- Novo Nordisk는 기업이 주제인 것으로 2개의 Session을 진행 (파트너십 탐색을 위한 홍보, Akero 인수 스토리)
- 심장 대사, 대체 전달 플랫폼, 새로운 메커니즘, undruggable target에 접근할 수 있는 모달리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언급함
- Novo Nordisk의 BD팀이 중국 내 두 군데 위치하여, 타 빅파마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BD가 활발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Novo Nordisk가 진행한 Session 전경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Novo Nordisk의 BD팀과 리더십 팀이 있는 지역



자료: Bio-USA 2026, Novo Nordisk, 하나증권

Novo Nordisk의 관심 분야 및 파트너십 철학 (2)

- Novo Nordisk가 관심있는 특수 영역으로 희귀 혈액, 신장 질환과 신규 modality 플랫폼이 언급됨
- 여전히 당뇨, 비만, MASH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을 탐색 중인 것을 주목할 만함
- MASH 자산 확보를 위해 Akeru를 인수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제로 세운 것에서, 인수가 너무 높았다는 평가를 의식하는 듯 했음 (Akeru 인수 건은 최대 규모 \$5.2B, 반면 Roche의 89bio 인수 건은 \$3.5B)

Novo Nordisk가 진행한 Session

주제	주요 내용	참석 패널
Novo Nordisk와의 파트너십: 관심 분야 및 파트너십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발 핵심 부서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 • 노보노디스크 내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해 비만 및 당뇨병 치료법을 개선하는 방안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mara Darsow - Novo Nordisk, 글로벌 사업 개발 담당 부사장 • Ryan Beltramini - Novo Nordisk, 사업 개발 거래 담당 수석 이사 • Wimal Kapadiac - Novo Nordisk, 탐색, 평가 및 정보 담당 부사장 • Zaki Salantic - Novo Nordisk, 과학 자문, 과학 및 평가
Novo Nordisk의 Akeru 인수 비하인드 스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keru 인수를 주도한 패널들이 과정과 경험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helle Davis - Bloomberg, 수석 딜(Deals) 기자 • Andrew Cheng - Akeru Therapeutics, 전 사장 및 CEO • Tamara Darsow - Novo Nordisk,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부문 글로벌 부사장

자료: Bio-USA 2026, Novo Nordisk, 하나증권

Novo Nordisk가 찾고 있는 기술 분야

관심 질환	상세 내용
당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P-1/인크레틴 기반 치료제 및 인슐린 분야의 차세대 혁신 • T1D, T2D에서 새로운 메커니즘 및 질병 완화제
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섭취 및 에너지 소비 조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 체중 감량의 질적 향상 및 예방 접근 방식
심혈관 대사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 질환 개선을 위한 새로운 Modality 및 MoA
MA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구용 치료제, 안전성, 내약성 및 편의성
희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 신장 질환 관련 다양한 MoA
Modality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능, 환자 경험 및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신규, 혁신 및 차세대 기술

자료: Bio-USA 2026, Novo Nordisk, 하나증권

Johnson & Johnson과 Genentech

- [Johnson & Johnson]

- (1) Johnson & Johnson의 AI에 대한 의견

- AI는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체제가 아님을 명확히 함
 - AI를 전체적인 약물 개발 스펙트럼에 활용 중이고, 제조까지 확장

- (2)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해 사후 검토를 진행하여, 더 효과적인 자산을 설계하는 중장기적 비즈니스 파트너임을 강조

- Yellow Jersey Therapeutics 인수 사례를 근거로 IL3RαxIL31 이중 타겟 항체가 아토피피부염 임상2b상에서 실패 (인종, 지역적 차이 원인)하며 개발 중단 했지만, 분석 데이터 및 피드백을 모회사인 Numab에 전달하며 상생을 도모한다는 말을 함

- (3) 새로운 치료 영역과 일레이긴 하나 일부 고형암 유형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 표명 (유일하게 언급된 적용중)

- [Genentech]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세션을 진행, 신약 개발에서의 AI의 역할을 강조 (23년 11월부터 NVIDIA와의 협력)

10.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사

글로벌 빅파마가 후원하거나 패널로 참여한 Session 주제 정리 (1)

카테고리	주제	참여 기업명
회귀질환	새로운 평가 지표 - 회귀 질환 및 만성 질환	Genentech, Biogen (패널)
회귀질환	이전과 이후: 회귀 소아 질환 우선 심사 바우처가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었을까?	Genentech, Sanofi (패널)
회귀질환	회귀질환 연구 개발의 성장 - 정책 변화가 미래에 미칠 영향	AZ 후원
회귀질환	초회귀질환 분야의 국제 협력	Sanofi (패널)
항암	종양학 투자 동향: 업계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Genentech, Gilead (패널)
항암	종양학에서 면역요법의 발전	Regeneron (패널)
한국	떠오르는 한국: 아시아의 차세대 혁신 허브	Boehringer Ingelheim (패널)
특허	생물약품 특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Amgen (패널)
특허	표적이 된 특허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에 맞서기	Genentech (패널)
투자/전략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법	Astellas Pharma, Bayer, CSL (패널)
투자/전략	후기 자산 거래에서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방법	Pfizer, Astellas Pharma (패널)
투자/전략	파이프라인 격차와 특허 만료 시점: 차세대 거래 성사의 방향 제시	Sanofi, Merck, Johnson & Johnson (패널)
투자/전략	비영리 단체 및 지역 사회 조직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BMS (패널)
투자/전략	혁신 과제: 차세대 바이오제약 생태계 강화	Genentech 후원

카테고리	주제	참여 기업명
투자/전략	전략적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통한 가치 창출	Boehringer Ingelheim, Johnson & Johnson (패널)
투자/전략	설계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 - 임상시험의 새로운 접근 방식	Amgen, Genentech (패널)
투자/전략	EY 바이오테크 비욘드 보더스 보고서 36판: 자본 시장 전망 및 혁신 자금 조달	Pfizer (패널)
투자/전략	미국과 아시아의 협력이 글로벌 바이오 기술 거래 방식에 미치는 영향	Novartis (패널)
투자/전략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명공학 혁신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전략	Eli Lilly 후원
투자/전략	전략적 혁신: 까다로운 목표를 위한 더욱 스마트한 파이프라인 구축	Daiichi Sankyo, Insilico Medicine (패널)
중동국가	비전에서 가치 창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첩한 생태계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바이오테크 시장 성장	BSM (패널)
중국	ADC, GLP-1 그리고 그 이상: 중국이 26년 신약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	Lilly Asia Ventures, Insilico Medicine (패널)
기업	Genentech 50주년	Genentech 메인
정책/규제	새로운 플랫폼 기술 개념과 의약품 허가 체계	GSK, Roche (패널)
정책/규제	의약품 정책 결정 과정에서 Real world 데이터 활용 현황	Genentech (패널)
정책/규제	미국 바이오 제조 산업의 미래와 투자 현황	Eli Lilly and Company (패널)
정책/규제	환자들을 위한 FDA 개혁	Genentech (패널)
정책/규제	환자 접근성 장벽: 오늘날의 과제, 내일의 해결책, 어제의 보상	Genentech (패널)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10.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사

글로벌 빅파마가 후원하거나 패널로 참여한 Session 주제 정리 (2)

카테고리	주제	참여 기업명
정책/규제	약속과 실제: FDA의 동물 실험 감축 로드맵 평가	Genentech (패널)
정책/규제	결정적인 순간: 340B, 갈림길에 서다	Novartis (패널)
정책/규제	환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의도적인 규제 대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Johnson & Johnson, Sanofi (패널)
인재/교육	학생 프로그램: 생명공학 개론	Genentech (패널)
인재/교육	생명과학 분야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정책, 교육, 산업이 인력 혁신을 이끄는 방식	Genentech (패널)
인재/교육	바이오제약 산업의 인재 솔루션에 대한 360도 종합 분석	Pfizer (패널)
유전공학/세포 치료제	CAR-T 치료법의 지역사회에 보급방안	BMS (패널)
심혈관	심혈관 질환 대유행에 맞서기	MSD 후원
백신/감염	미국 내 백신 접근성 보장: 연방 정부 조치가 주 정부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Merck & Co 후원
백신/감염	독감 퇴치를 위한 혁신	AstraZeneca, Merck & Co. (패널)
백신/감염	예방접종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다: 영유아 RSV 예방을 강화하는 조치	MSD 후원
백신/감염	과학이 신뢰의 기로에 섰을 때: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 재건	Sanofi, Novavax (패널)
Novo Nordisk	노보노디스크와의 파트너십 - 회사의 관심 분야 및 파트너십 철학에 대한 통찰	Novo Nordisk 메인
기타	GLP-1을 넘어선 새로운 메커니즘과 치료법으로 대사 질환을 치료합니다.	Boehringer Ingelheim, Pfizer, Wave Life Sciences (패널)

카테고리	주제	참여 기업명
기타	장수 생물학을 노화 관련 질병 치료법으로 전환하기	Eli Lilly and Company (패널)
기타	시판 후 안전성 재구상: 통합 시판 후 등록 시스템 구축	Novartis, CSL (패널)
기타	대법원에 오른 스킨 라벨: 히크마 대 아마린 사건	Regeneron (패널)
기타	바이오테크의 60년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미래에 대한 세계관	Pfizer (패널)
Novo Nordisk	Novo Nordisk + Akeru: 인수 비하인드 스토리	Novo Nordisk 메인
J&J	환자를 위한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파트너십: 존슨앤존슨의 관점	Johnson & Johnson 메인
CNS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전략	AbbVie (패널)
CNS	CNS 치료제의 혁신에서 임상 적용까지 여정	Roche (패널)
CNS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새로운 정의: 여성 환자 대상	Eli Lilly and Company (패널)
CNS	신경과학의 새로운 지평: 중추신경계 연구 및 개발의 최신 발전 동향	Eli Lilly and Company (패널)
CNS	신경염증 -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의 차세대 핵심 과제	BMS (패널)
CDMO	연구실에서 환자까지 - 혁신적인 제조 기술 도입에서의 규제 현황	Moderna, GSK, Roche (패널)
AI	2026년 시가 바이오제약 산업을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Eli Lilly and Company (패널)
AI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유전체 데이터 생성	NVIDIA, Eli Lilly and Company, BMS (패널)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글로벌 빅파마가 후원하거나 패널로 참여한 Session 주제 정리 (3)

카테고리	주제	참여 기업명
AI	AI 시대의 생물의학적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Microsoft (패널)
AI	신약개발 양자 컴퓨팅	NVIDIA, Microsoft, Insilico Medicine (패널)
AI	AI의 계산기에서 협업자로의 전환	Eli Lilly and Company (패널)
AI	상업 예측 및 사업 개발/라이선스 분야의 AI: 역량 격차인가, 아니면 신뢰 격차인가?	Novartis (패널)
AI	AI 혁신 – 잠재력을 획기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조직 구축	Takeda (패널)
AI	연구 개발을 촉진할 적합한 AI 파트너 찾기	Genentech 후원 / NVIDIA, Roche (패널)
AI	바이오제약 분야의 AI 및 데이터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전략	Eli Lilly and Company, GSK (패널)
AI	환자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연구 속도를 높이는 대규모 연합 학습 (Deloitte)	Genentech, NVIDIA (패널)
AI	AI에 대한 과대광고를 제약 업계의 실질적인 혁신과 측정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기	Novartis, CSL (패널)
AI	스마트한 과학, 더욱 스마트한 거래: AI 플랫폼이 신약 개발 거래를 어떻게 혁신하는가	Roche (패널)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11. Team Korea: 한국관 소개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CDMO와 임상시험 센터를 갖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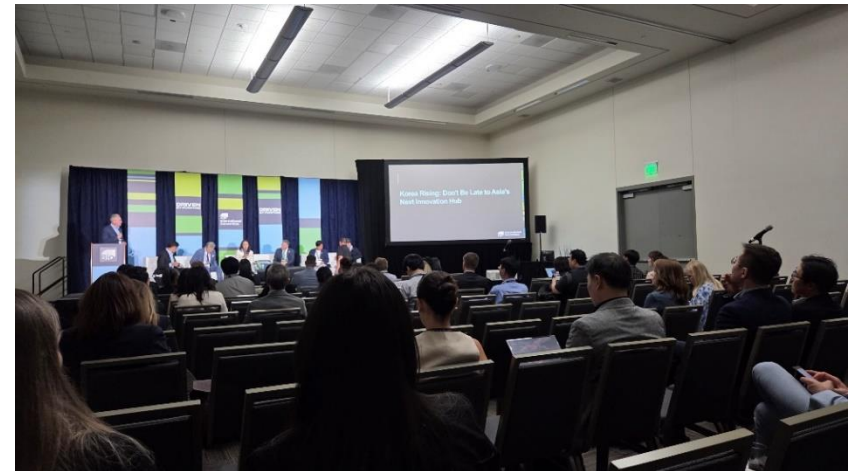
- 올해 참석한 국내 기업 및 기관은 약 350개로, 개최 국가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 한국관의 면적 또한 타 국가 대비 가장 큰 수준으로, 상장사 및 비상장사가 모두 참석함
- 한국을 주제로 한 세션에는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동제약, 에이비엘바이오에서 패널로 참석했고, 해외 기업으로는 Boehringer Ingelheim이 패널로 참석하여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국가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림

한국관 부스 전경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한국을 주제로 한 Session 분위기



자료: Bio-USA 2026, 하나증권

글로벌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 → 의료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높이는 방향

- 새로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약품 허가 체계가 유연함을 갖춰야 함
- 소아의 임상 참여를 높여야 함
 - (1) 희귀 질환에서 소아기에 최대 효과 시점(PMI)이 나타남: 질병 부담이 가장 높는데 치료 가능 기간이 짧기 때문
 - (2) 이러한 환자를 배제하면 치료 접근성 지연, 시험의 타당성 약화, 일반화 가능성 제한, off-label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음
- 중요한 결정에 Real World Data (RWD; 실사용데이터) 활용도를 높여야 함
 - (1) 청구 기반 데이터에 과도한 의존 경향 →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 접근성 불평등 초래,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인프라 부족 결과
 - (2) 의약품 가격 적정성 관련 결정, 건강보험지원 대상 의약품을 선정할 때 의약품 혁신과 환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
- 바이오마커 관련 법률을 재정하고 실무에 적용 → 환자의 정밀 검사 접근성을 향상, 보험 및 진단 정책을 재편하는데 기여
- 임상기관은 정적인 서류 기반 검토 방식에서 역동적이고 실시간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행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위험 감소, 투명성 향상, 환자의 임상 참여/유지 권한 부여
- 환자 경험 데이터(PED) 관련하여, 제약회사와 규제 기관 간의 조기 협력 촉진
 - (1) PED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 규제 기관의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 제품 라벨 및 환자 대상 자료에 PED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환자 중심의 신약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줌
 - (2) 규제 기관은 PED와 관련하여 조기에 빈번하게 소통할 것을 권장하지만, 실상은 규제 기관의 피드백과 지침이 불확실하여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에서 PED의 최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

AI와 중국의 발전으로 속도전은 심화될 것 → 배울 점과 대응

- AI로 Best in Class 개발 속도가 증가되어 바이오 개발은 더욱 속도전이 됨
 - (1) 한 분야에 성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를 관찰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AI는 그 속도를 부추김
 - (2) “경쟁 증가 → 자산의 수 증가 → 기회 감소, 가격도 감소 → 후발주자는 기회 비용 증가, 기대 수익 감소”의 속도가 빨라진 것
 - (3) 이러한 사례는 최근 2-3년 사이의 GLP-1 경쟁에서 확인함 (Bio-USA에서는 GLP-1을 이미 성숙 단계로 정의)
- 중국이 First in Class에 투자를 하는 혁신성은 없었다는 시각이 있으나, 향후 5년에 주목해야 함
 - (1) BIC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FIC를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제도적, 인프라적(AI, 임상기관, 제조시설 등) 기틀을 마련함
 - (2) 중국은 FIC에 도전하고 그 기회비용을 감당할 자본력은 충분한 상태 → FIC 개발로의 빠른 전환이 관찰될 것
- 기업의 성과는 투자자(FI, SI 모두 포함)의 안목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
 - (1) 투자자는 기업과의 소통에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와 정보가 있고, 경쟁이 심하고 비싼 거래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음
 - (2) 신뢰를 쌓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교육되어 더 나은 비전에 투자하게 됨 → 국가 내 기술이전 성공사례가 많을 수록 더 경쟁력 있는 기술이 도출되는 이유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7%	2.73%	0.00%	100%

*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